

## 『ア-カイズの 科學』(上, 下)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編. 서울 : 역사비평사, 2003)

박성진 \*

### 1. 시작하며

경험과 이론은 상호보완적이다. 경험없는 이론은 공허하며 이론없는 경험은 독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기록관리도 예외는 아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만큼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늘 필요하며, 단지 확인에서 그칠 일도 아니다. 모자란 부분은 서둘러 채워져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온전한 정착은 사회 운영시스템과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미래 우리나라의 문화적 깊이 역시 기록관리의 사회적 역량과 동일한 수준에서 발현될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아카이브즈의 과학]은 현재 일본 기록관리의 경험적·이론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서 기록학 분야의 후발 주자인

\*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대표논문 :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2003 ;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구』 5, 한국기록학회, 2002 ;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9, 정부기록보존소, 2002.

우리의 현실과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문서관학, 사료관리학, 기록사료학 등의 이름으로 아카이브즈학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척되면서 연구성과들이 출판되어 세상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일본 國文學資料館史料館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연구자들이 1996년도부터 5년에 걸쳐 진행한 [기록사료의 정보자원화와 사료관리학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기록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자에게는 수십명이 수년간에 걸쳐 공동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부러움의 대상이다. 많은 부분 당사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책의 구성과 관점 그리고 특징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 2. 내용 구성과 범위

전체 구성과 관련하여 편집진은 서두에서 “기록사료의 특성 및 본질에 대한 연구”, “기록사료 보존시설인 문서관에 대한 연구”, “기록의 평가선별, 정리, 검색, 이용 및 공개, 보존관리 연구”를 표방하였다. 이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관리 및 보존관리 그리고 열람공개 등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영역을 대체로 포함한다. 첫째와 둘째 과제에 관한 논의들이 上卷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과제는 下卷에서 검토되고 있다. 목차를 따라서 전체 내용구성의 대강을 살펴보기로 하자.

上卷 제1부 「정보와 아카이브즈」에는 인간활동의 흔적인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기록사료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정보의 발생, 기능, 보존과정 등 기록사료의 본질과 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기록사료를 조직체의 활동 속에서 파악하는 입장이 강조된다. 제1편 [정보와 기억·기록]에는 인간의 여러 가

지 활동과 정보·기억·기록이 연관되는 과정이 사회구조 또는 기록을 생산한 조직체의 변화 속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전근대부터 근현대까지 각 시대 기록사료의 형태와 기능을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1편의 검토대상이 대부분 종이기록 중심이지만 전자기록의 특징 그리고 과제에 대한 모색도 포함되어 있다. 제2편 [아카이브즈학과 관련과학]에서 필자는 아카이브즈학과 역사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등 인접학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아카이브즈학의 학제적 성격을 전망하고 있다.

제2부 「문서관과 아키비스트」는 기록사료의 보존·활용시설인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고찰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아카이브즈 시스템론]에서 필자는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기록사료 보존 관리의 이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편은 지역사회 기억장치로 기능하는 기록관의 역할 그리고 아카이브즈 시스템론의 구축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정보공개 역시 기록관의 주요기능으로 위치되고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까지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었다면, 향후의 공개업무는 기록관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의 하나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록관의 전문적인 아키비스트의 양성제도 확립을 둘러싼 논의의 흐름과 과제 역시 적극적 의미로 평가·소개되고 있다.

下卷 제3부 「일본 아카이브즈의 구조」는 기록사료의 정리와 목록편성의 전제로서 일본의 기록사료 관리실태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 결과물이다. 近世의 領主文書와 지방문서, 근현대의 공문서와 기업기록을 대상으로 기록사료를 생산한 각종 조직체의 기록사료군 전체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기록물을 이용하여 실제의 목록작성 방법을 시도한 점은 제3부의 장점이다.

제4부 「아카이벌 콘트롤」에는 기록사료의 조사, 수집, 편성, 정리,

보존, 검색도구 작성, 활용·공개까지 기록관의 기능에 대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1편 [도큐멘테이션 프로그램]에서 필자는 기록자료 관리 절차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다량으로 생산되는 기록 속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 확정과정에 적용되는 기록관리시스템 및 평가선별론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록자료 정보에 대한 기록관의 역할과 의의,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제2편 [아카이벌 데이터 구축과 제공]에서 필자는 검색수단 작성의 전제로서 편성과 기술에 관한 각 시대의 실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필자는 개별 기록물 중심의 리스트형 목록을 중시하던 관행을 비판하고, 목록 작성과 기술(description)에 관한 국제표준의 현황과 과제, 점차 증시되고 있는 전자기록의 적용여부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5부 [아카이브즈의 보존과 복원처리]에는 기록자료의 물리적 보존에 관한 방법론을 고찰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복원처리의 기본이념, 기록자료 보존관리 방법의 변천, 보존관리의 새로운 방향, 보존환경과 예방조치, 복원처리 기술의 새로운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 복원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 3. 관점 그리고 몇 가지 특징

먼저 일본 연구자들은 아카이브즈학에 대하여 보다 확장된 새로운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기록물 자체와 그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카이브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구에서 시작된 새로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여기에 기록관의 기능을 아카이브즈 개념 영역에 추가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로지만 일본처럼 기록학 전통이 미약한 사회에서 수집·정리·보존·공개 등 기록관의 실제 기

능을 아카이브즈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관점은 사회적 시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책에는 아카이브즈학 연구의 철학적 기반으로서 ‘집합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집합적기억 개념은 기록학 본래의 기능을 풀어가는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시대의 아카이브즈학의 기능과 필요성 역시 집합적기억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집합적기억이라는 개념은 “집단 체험속에서 과거로부터 남겨진 것 혹은 집단이 과거로부터 만들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적기억 개념을 통하여 지식·문화·이데올로기 등 요소형태로서의 기억과 기록의 사회적·정형적 형태를 확정함으로써 인간의식의 역사적 규정성이 보다 정밀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집합적기억의 장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록관이다. 기록관리의 최종 목적이 결국 개인의 기억, 단체의 기억, 집합적기억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기록학 연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록사료구조론’이다. 일본에는 기록학과 역사학의 관련성이 특히 강하다. 일본에서 최초로 기록학연구 또는 기록보존운동을 주도한 그룹이 역사학계였다. 또한 일본에는 고문서학 연구가 기록학에 앞서 일찍부터 발달한 전통이 있다. 역사학과 기록학이 모두 정보자원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학과 역사학의 자연스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록사료구조론’ 연구는 3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즉 조직체의 관리에 관한 연구, 기록군 전래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록군 계층구조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기록군 계층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록정보의 자원화에 불가결한 연구로서 조직체 구조의 변화에 입각하여 기록군이 내포하는 계층적 질서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제표준인 ISAD(G) 개

념이 도입되었다. ‘기록사료구조론’의 기본적인 사고 역시 기록군 구조를 토대로한 기록정보의 기술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군 구조분석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록군구조분석’을 바로 ISAD(G)로 이해하는데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기록사료구조론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의 역사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하고 싶다. 기록학에 관심이 없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기록사료구조론에서 역사연구 자체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사료구조론은 역사학과 기록학의 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연구자들이 한국 기록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넷째, 일본 기록학계 역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용문제를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들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최근 동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학계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서구의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인 레코드키퍼(record keeping), 기록연속체(record continuum) 개념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레코드 관리(record management)와 아카이브즈 관리(archives administration)의 구분으로부터 전자와 후자를 아우르는 기록총체에 관한 관리로 아키비스트의 임무가 재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카이브즈학을 단지 ‘물리적·지적통제’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고품질성을 어떻게 확보, 유지할 것인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도입한다. 결국 그들은 전자기록 시대의 도래,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방안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4. 남은 과제

이 책은 일본 아카이브즈학의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편집진도 다음과 같이 그 한계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첫째, 이 책은 아카이브즈학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관한 현대 공문서론, 기업체의 조직적 연구분야인 현대 기업기록론 등의 분야를 정면에서 취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관리 문제에 대한 취급도 불충분하다. 아카이브즈 관리의 구체적 연구사례도 행정 공문서나 고문서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의료, 복지, 교육, 시민운동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물리, 화학, 토목 등의 학문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자연과학계 아카이브즈나 음악,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 예술계·방송계 아카이브즈에 대해서도 거의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아카이브즈학을 다루는 이상,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세계 아카이브즈학과의 괴리이다. 제1부 [아카이브즈학의 지평]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세계 아카이브즈학은 현재 과학혁명 또는 패러다임 이동이라고 할만큼 큰 변혁의 시기에 놓여있다. 정보화, 디지털화, 민주주의 이념의 확대 등이 이러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라이프사이클론, 거기에 따라 구축된 레코드 매니지먼트나 아카이브즈 관리의 이론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기록학계와의 학문적 괴리는 서둘러 극복되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일부 분야는 일본을 앞선 부분도 있다. 예컨대, 우리는 행정기관 대부분의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생산하는 관리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관리 기본원칙들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이 책에서 일본 기록학계는 최소한 관리시스템상 스스로의 한계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다. 그 자체는 이미 일보전진을 위한 시발점이다. 일본 기록학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일본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한계는 또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